

SERI 경영 노트

2011. 9. 22. (제120호)

21세기 한국기업 10년: 2000년 vs. 2010년

목차

1. 2000년 vs. 2010년	1
2. 한국기업 10년간의 변화	3
① 한국기업의 글로벌 약진	3
② 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4
③ 업종이나 규모보다 기업 역량이 성과를 결정	5
④ 제조업의 사업 수익성 악화	7
3. 향후 과제	9

작성 : 김종년 수석연구원(3780-8063)
jongnyun.kim@samsung.com

《 요 약 》

한국기업은 21세기의 10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한국 2000대 기업(금융 제외)의 매출액은 2000년 815조 원에서 2010년 1,711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제조업 대 서비스업의 매출액 비중은 2000년 49.3 : 50.7에서 2010년 61.4 : 38.6으로 변화했다. 21세기의 지난 10년을 '제조업의 시대'라고 할 만큼 제조기업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국기업의 지난 10년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기업의 글로벌 약진이 두드러졌다.** IT 기업이 디지털화에 부응하며 급성장했고,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 전통 '굴뚝기업'의 위상도 높아졌다. 2000년에는 한국 대표기업의 매출 규모가 글로벌 기업에 크게 못 미쳤으나, 2010년에는 당당히 겨룰 정도로 한국기업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②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됐다.** 외환위기 당시 취약했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는데, 재무건전성의 바로미터인 부채비율이 2000년 203.5%에서 2010년 101.1%로 하락했고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84.6%에서 117.1%로 상승했다. ③ **업종이나 규모보다 기업의 역량이 성과를 결정지었다.** 먼저 업종 간 성과 차이가 축소되고, 동일 업종에 속한 기업 간의 성과 차이가 더욱 확대됐다. 과거에는 성장산업에 속하는 것이 중요했으나, 현재는 개별 기업의 역량이 수익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기업 규모(매출)별로 보면 상위 20% 기업 평균과 하위 20% 기업 평균의 격차가 30배에서 26배로 축소됐으며, 매출 상위일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던 경향이 줄어들었다. 반면, 동일 매출 구간 내의 수익성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이는 업종이나 매출 규모별로 기업실적을 판단할 때 단순 평균치의 의미가 퇴색하고, 상위권 기업의 실적을 중심으로 경영성과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제조업의 사업 수익성이 악화됐다.** 수익 중심의 경영으로 제조업 순이익률이 -3.6%에서 7.3%로 급등했지만, 사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20.2%와 8.0%에서 18.3%와 7.8%로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금속, 식품,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 대표기업들의 성공은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이다. 향후 한국기업의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내수 기업의 성장엔진을 점화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화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향후 10년은 변신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한국기업은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新성장사업을 본 궤도에 빨리 올려야 한다. 선진국과 신흥국 기업들이 이미 신산업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1. 2000년 vs. 2010년

□ 한국 2000대 기업(금융 제외)¹⁾의 매출액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성장했으나, 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

- 매출액이 2000년 815조 원에서 2010년 1,711조 원으로 2.1배 성장

- 제조업 대 서비스업 비중이 2000년 49.3 : 50.7에서 2010년 61.4 : 38.6으로 역전

· 한국 2000대 기업의 매출액 중 도소매업의 비중이 2000년에 4분의 1이었으나, 2010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

· 반면, 2010년 석유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2000년에 비해 확대

한국의 2000대 기업

구분	2000년	2010년	비고
매출액	815조 원	1,711조 원	2.1배
제조	401(49.3%)	1,050(61.4%)	2.6배
서비스	414(50.7%)	661(38.6%)	1.6배
주요 업종 (매출 비중)	① 도소매 24.5% ② 석유화학 12.0% ③ 전기전자 11.0% ④ 자동차 7.1% ⑤ 건설 6.7%	① 석유화학 16.1% ② 전기전자 15.6% ③ 도소매 13.2% ④ 자동차 8.4% ⑤ 금속 7.6%	석유화학에 제약 포함
종업원 수	156만 명	161만 명	2.8% 증가
제조	91만 명	102만 명	12.3%
서비스	65만 명	59만 명	-10.5%
5대 기업	현대종합상사 41조 원 삼성물산 41조 원 삼성전자 34조 원 LG상사 20조 원 한전 18조 원	삼성전자 112조 원 SK이노베이션 43조 원 한전 39조 원 현대자동차 37조 원 GS칼텍스 33조 원	-

주: 본 보고서의 국내기업 자료는 NICE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DB에서 원 데이터를 받아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

¹⁾ 2010년 기준 한국의 2000대 기업(매출 기준)은 외감법인 2만여 개 중 10분의 1이지만 매출의 81%, 순이익의 101%, 고용의 58.4%를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한국기업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음

□ 제조업 부문의 고용은 늘고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은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2배 향상

- 2000대 기업의 종업원 수는 2000년 156만 명에서 2010년 161만 명으로
2.8% 증가

· 제조업(만 명): 91 → 102(12.3%), 서비스업: 65 → 59(-10.5%)

- 1인당 매출액이 2000년 5.2억 원에서 2010년 10.6억 원으로 배증

· 제조업(억 원): 4.4 → 10.3(2.3배), 서비스업: 6.3 → 10.6(1.8배)

□ 부문별로 보면 매출액 상위 5대 기업 중 제조기업이 2000년 1개사에서
2010년 4개사로 증가²⁾

- 2000년 1위 기업은 매출액 40.8조 원의 현대종합상사이고, 삼성물산,
삼성전자, LG상사, 한전의 순

- 2010년 1위 기업은 매출액 112.2조 원의 삼성전자이고, SK이노베이션,
한전, 현대자동차, GS칼텍스의 순

□ 지난 10년간 한국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글로벌 무대에 당당히
섰으나, 향후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 에너지가 절실

- 한국기업을 이끄는 일부 간판기업뿐 아니라 대다수 기업의 실적도
크게 상승

- 그러나 기존 사업의 성장 에너지가 점차 소진되어 21세기형 新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²⁾ 2003년부터 종합상사 등의 대행매출액이 제외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조기업이 약진을 거듭한
것은 분명한 사실

2. 한국기업 10년간의 변화

① 한국기업의 글로벌 약진

□ 한국기업은 지난 10년간 IT와 전통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

- IT 기업이 디지털화에 부응하며 급성장했고,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 전통 '굴뚝기업'의 위상도 상승
- 2000년에는 한국 대표기업의 매출 규모가 글로벌 기업에 못 미쳤었으나, 2010년에는 위상이 대폭 제고

한국 대표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



자료: 국내기업은 NICE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 DB 수치를 원/달러 평균환율로 환산
해외기업은 Thomson Reuters, T1.

□ 한국 대표기업의 글로벌 순위가 급상승하고 브랜드 가치도 향상

- *Fortune* 글로벌 500에 선정된 한국기업은 2000년 11개 사에 최고 순위가 92위였으나, 2010년에는 14개 사에 최고 순위도 22위로 상승
- IT 기업뿐만 아니라 철강, 중공업, 석유화학 기업 등이 골고루 포함

Fortune 글로벌 500 한국기업

(단위: 10억 달러)

2000년			2010년		
순위	기업명	매출액	순위	기업명	매출액
92	삼성전자	38.5	22	삼성전자	133.8
103	현대	36.0	55	현대자동차	97.4
105	삼성	35.9	82	SK	78.4
123	SK	31.8	161	포스코	52.5
149	현대자동차	28.8	171	LG전자	48.2
193	LG종합상사	23.5	220	현대중공업	39.0
222	삼성생명	21.2	238	GS	36.6
244	LG전자	20.1	271	한국전력	34.1
300	한국전력	16.5	321	한화	30.0
362	SK글로벌	14.4	333	삼성생명	28.8
422	포항제철	12.2	440	LG디스플레이	22.1
			489	두산	19.9
			492	삼성물산	19.8
			498	한국가스공사	19.6

자료: Fortune (각 연도), FORTUNE 500.

<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fortune500/2011/?iid=F_Sub>**② 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 외환위기 당시 취약했던 한국기업의 재무구조가 10년 동안 크게 개선

- 재무건전성의 바로미터인 부채 비율은 2000년 203.5%에서 2010년 101.1%로 절반 이상 감소

· 특히 제조기업의 부채 비율이 213.7%에서 86.2%로 하락했으며, 상당수 우량기업은 차입금보다 현금이 더 많은 상태

- 기업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유동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도 2000년 84.6%에서 2010년 117.1%로 상승

· 제조기업의 유동 비율은 2000년 78.2%에서 2010년 118.5%로 개선

한국 2000대 기업의 재무건전성 변화

구 분			2000년	2010년
부채 비율 (%)	부채/ 자기자본	전체	203.5	101.1
		제조	213.7	86.2
		서비스	194.9	125.8
유동 비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전체	84.6	117.1
		제조	78.2	118.5
		서비스	92.4	115.2

③ 업종이나 규모보다 기업 역량이 성과를 결정

□ 업종 간 성과 차이가 축소되고, 동종 업종에 속한 기업 간 성과 차이는 더욱 확대³⁾

- 업종별 영업이익률의 표준편차는 2000년 2.6%에서 2010년 1.7%로 축소
- 반면, 동종 업종에 속한 기업 간 영업이익률의 변동성인 업종별 표준편차의 평균은 2000년 10.4%에서 2010년 11.2%로 확대

한국 2000대 기업의 주요 업종별 영업이익률과 변동성

주요 업종		영업이익률 중간값(%)		변동성(표준편차, %)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제조	기계장비	5.6	5.8	8.4	9.9
	석유·화학	8.0	7.4	10.7	10.9
	자동차/운송장비	3.5	3.8	7.3	9.0
	전기·전자	6.1	4.3	6.8	6.0
서비스	건설	5.4	4.4	10.4	12.7
	도·소매	2.4	2.3	8.7	6.0
	숙박·음식점	8.0	4.4	8.6	4.6
	운송	4.5	3.7	16.8	17.7
	전기·가스	8.8	4.8	7.1	10.9
	통신	-1.5	1.6	30.5	8.1
업종별 표준편차의 평균				10.4	11.2
업종별 영업이익률 중간값의 표준편차				2.6	1.7

³⁾ 기업이 어느 업종에 있는가가 성과를 결정한다는 포터(Porter)의 산업효과 이론이 나온 후 기업의 내부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바니(Barney) 등의 자원기반 이론이 대두(6쪽 박스 참조)

□ 과거에는 성장산업에 속하는 것이 중요했으나, 현재는 개별 기업의 역량이 수익성에 더 큰 영향

- 동태적인 기업 성장 측면에서 보면, 기업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자원을 재배치하여 새로운 성장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

산업효과 관점 vs. 자원기반 관점

- ▷ 기업의 실적은 외부환경(업종)과 경쟁력(내부역량)의 결과인데, 이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산업효과이론과 자원기반이론으로 구분
- 1970년대 후반 외부환경 중 산업의 영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산업효과이론(Industry Effect)'이 대두
 - 1990년대 동종 산업 내에서 기업 실적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자 산업보다 기업 자체의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w, RBV)'이 대두
 - 경기나 산업의 부침 등 외부환경은 기업이 조절할 수 없으므로 경쟁력을 키워 외부환경의 영향력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
- (자료: 김종년(2010). "운을 다스리는 변신력" (경영노트 42호). 삼성경제연구소.)

□ 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하위 기업 간의 비중 격차가 축소

- 매출 규모별로 5등분하여 상위 20% 기업과 하위 20% 기업의 매출액 격차를 보면 2000년 30배에서 2010년 26배로 축소
 - 상위 20% 기업의 매출액 합은 2000년 650.7조 원에서 2010년 1,341.9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비중은 79.8%에서 78.4%로 감소
- 하위 4구간의 매출액은 상위 20%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비중이 모두 확대
 - 하위 20% 기업의 매출액은 21.8조 원에서 51.6조 원으로 137% 증가했으며, 비중도 2.7%에서 3.0%로 확대

- 매출액이 높은 그룹일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줄어드는 반면, 동일 매출 구간에 있는 기업 간의 수익성 격차는 더욱 확대
- 2000년에는 매출액이 클수록 영업이익률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0년에는 그러한 패턴이 사라지고 격차도 축소
 - 한국 2000대 기업 영업이익률의 매출액 가중평균은 10년간 상승한 반면, 중간값은 하락하는 상반된 결과
 - 영업이익률 가중평균: 2000년 6.2% → 2010년 6.9%
 - 영업이익률 중간값: 2000년 5.1% → 2010년 4.5%
- 업종이나 매출 규모별로 기업실적을 판단할 때 단순 평균치의 의미가 퇴색하고, 상위권 기업의 실적을 중심으로 해당 그룹의 경영성과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짐

한국 2000대 기업의 매출구간별 실적 변화

매출 구간	매출(조 원)		영업이익률(%)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가중평균	중간값	가중평균	중간값
상위 20%	650.7	1,341.9	6.4	5.7	7.0	4.8
상위 20~40%	72.0	157.3	5.4	5.3	6.6	4.5
중간 40~60%	41.6	93.6	5.6	5.1	6.5	4.6
하위 20~40%	28.9	66.8	5.5	4.9	7.0	4.0
하위 20%	21.8	51.6	5.0	4.6	6.0	4.4
전체	814.9	1,711.2	6.2	5.1	6.9	4.5

④ 제조업의 사업 수익성 악화

-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순이익률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사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제조기업의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하락
- 한국 2000대 기업의 순이익률은 2000년 -1.6%에서 2010년 5.9%로 상승했으며, 특히 제조기업은 -3.6%에서 7.3%로 대폭 개선

-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초저금리로 금융비용이 급감하고
지분법 평가이익 등 플러스 요인이 가세하며 순이익이 크게 증가
- 그러나 기존 사업에서의 글로벌 경쟁환경이 악화되면서 제조기업의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하락
- 매출총이익률: 2000년 20.2% → 2010년 18.3%,
영업이익률: 2000년 8.0% → 2010년 7.8%⁴⁾

한국 2000대 기업의 수익성 비교

구분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제조	20.2	18.3	8.0	7.8	-3.6	7.3
서비스	15.8	19.7	4.4	5.4	0.3	3.6
전체	18.0	18.9	6.2	6.9	-1.6	5.9

□ 순이익은 전 업종에서 크게 향상됐으나,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업종별로 명암이 교차

- 기계장비, 자동차 등은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금속, 전기·전자,
식품 등은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하락

한국 2000대 기업 중 주요 제조업종의 수익성 변화

구분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기계장비	17.8	18.4	5.0	7.8	-13.6	3.8
석유·화학	14.8	15.2	5.9	7.5	-1.5	6.1
섬유·의복	21.3	34.2	5.6	7.8	0.3	6.0
자동차	17.2	17.7	3.0	6.1	-22.4	9.3
금속	15.2	12.7	8.9	8.2	-4.4	6.6
식품	31.2	29.5	7.8	7.1	0.5	7.5
전기·전자	27.2	21.4	13.9	7.4	6.1	7.4
제지	20.0	16.3	8.2	5.8	1.7	3.2

⁴⁾ 2000년에는 IT 버블 붕괴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웠고, 2010년에는 단군 이래 최대 실적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

3. 향후 과제

서비스와 내수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확대할 필요

□ 한국 대표기업의 성공은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

- 제조업종 중 최근 수년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 및 운송장비 기업의 수출 비중이 크게 상승⁵⁾

· 자동차 업종의 수출 비중: 2000년 42.6% → 2010년 54.8%

· 특히, 운송장비 업종은 20.1%에서 39.1%로 배증

□ 향후 한국기업의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및 내수 기업의 성장 엔진을 점화해야 함

- 일부 제조업종만으로 한국경제 전체를 이끄는 것은 한계

· 선진국 기업 중 주로 첨단 제조기업과 글로벌화된 서비스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신흥국 기업도 무서운 속도로 도약 중

□ 성장이 더딘 한국의 서비스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돌파구를 모색

- 일본의 서비스 기업은 그간 거대한 내수시장에 안주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⁶⁾

- 문화적·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화를 검토

⁵⁾ 기업의 글로벌화 정도를 보려면 수출 비중뿐 아니라 해외 생산 비중과 해외 자산 비중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데, 현대·기아자동차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00년 4.8%에서 2010년 45.2%로 상승

⁶⁾ 서비스産業生産性革新プロジェクトチーム (2010). "2015年のサービス産業." 野村総合研究所.

향후 10년은 변신의 시대

- 한국기업은 그간의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판도 변화에 대비
 - 한국은 IT 발전지수가 세계 1위⁷⁾일 정도로 IT 산업 기반이 탄탄하고, 주요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확보
 -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글로벌 기업 판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점은 한국기업에 기회로 작용
-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新성장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는 게 시급
 - 선진국과 신흥국 기업 사이에 끼여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M&A 역량과 개방된 R&D 체제 등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중요
 - 한국의 주요 기업은 최근 신사업 선정을 마치고 투자를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지는 않은 실정
 - 2011년 9월 'Fortune 선정 초고속 성장기업 100선'에 한국기업이 전무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기업

- ▷ 최근 미국의 *Fortune*지는 '세계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100대 기업'을 선정
 - 시가총액 2.5억 달러, 매출 5,000만 달러, 순이익 1,000만 달러 이상의 글로벌 기업 대상이며, 3년 평균 매출 · 순익 · 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평가
- ▷ 상위 6대 기업 중 4개 사가 바이오 및 헬스 관련 기업
 - 1위는 미국의 건강관리 전문업체인 SXC헬스솔루션
 -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인 중국의 바이두는 4위를 차지
 - 이 밖에 커피메이커, 에너지 기업과 케이블TV, 호텔 등이 10위 안에 포진

(자료: *Fortune* (2011.9.13.). Fastest Growing Companies.
<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

⁷⁾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010년 9월 15일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IDI: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역량을 평가)에서 한국은 152개국 중 1위를 차지